



나스르 궁전

Mexuar 메수아르

Comares 코마레스 탑

Leones 사자 (레오네스)

MEXU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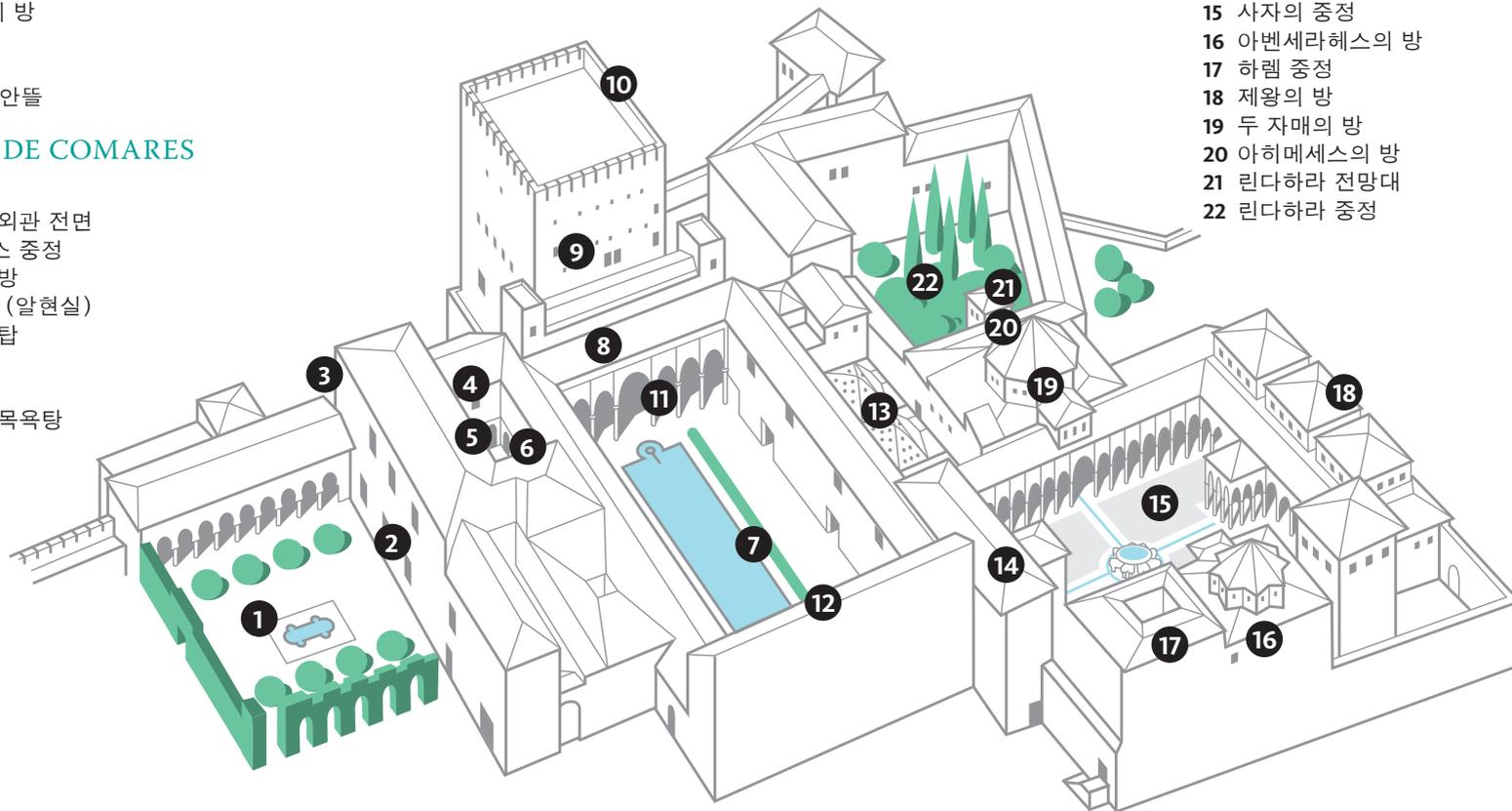
메수아르

- 1 마추카 중정
- 2 메수아르의 방
- 3 기도실
- 4 황금의 방
- 5 황금의 방 안뜰

PALACIO DE COMARES

코마레스 궁

- 6 코마레스 외관 전면
- 7 아라야네스 중정
- 8 바르카의 방
- 9 대사의 방 (알현실)
- 10 코마레스 탑
- 11 북쪽문
- 12 남쪽문
- 13 코마레스 목욕탕



PALACIO DE LOS LEONES

사자의 궁 (레오네스 궁)

- 14 모카라베스의 방
- 15 사자의 중정
- 16 아벤세라헤스의 방
- 17 하렘 중정
- 18 제왕의 방
- 19 두 자매의 방
- 20 아히메세스의 방
- 21 린다하라 전망대
- 22 린다하라 중정



다양한 이유로 예술의 백미이자 세상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알함브라 궁전이다. 멀리서도 산 니코라스 전망대에서 시에라네바다산맥 앞에 알함브라 궁전의 거대한 모습이 보이며, 다가가서 벽을 장식하는 풍부한 문양을 보며 감탄을 할 수 있다. 나스르 궁전은 여러 군사 요새, 건물들과 정원을 가진 복잡한 공간의 중심이다. 14세기에 건설된 이곳은 나스르 왕조의 역대 왕들이 거주하며 이 곳에서도 귀족들이 지냈던 곳이다. 오가던 손님이 외관의 엄격함과 달리 방과 안뜰의 화려한 모습에 놀랐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많은 변경에도 불구하고 부러워할 만큼 상태로 보존되어 있어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곳이다.

메수아르

메수아르는 나스르 술탄과 신하들이 모이고 정의를 집행한 장소가 되기 전에 원래 알현실이었을 것이다. 1492년 그라나다 재정복 후 가톨릭 군주는 이곳을 예배실로 변형하고 채광창을 밝히는 빛을 차단한 위층 바닥을 만들어져 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럼에도 메수아르의 돋보이는 장식은 아직까지도 권력을 보여준 원래 의미가 들어가는 것이다.





▲ 나스르 기법과 그리스-로마 상징을 같이 이용해 헤라클레스의 기둥을 볼 수 있는 메수아르 방의 타일 조각 근접 촬영.

▶ 다른 방과 달리 메카를 향해 있는 메수아르 기도실에서 알바이신 아름다운 전망을 바라볼 수 있다.



코마레스 궁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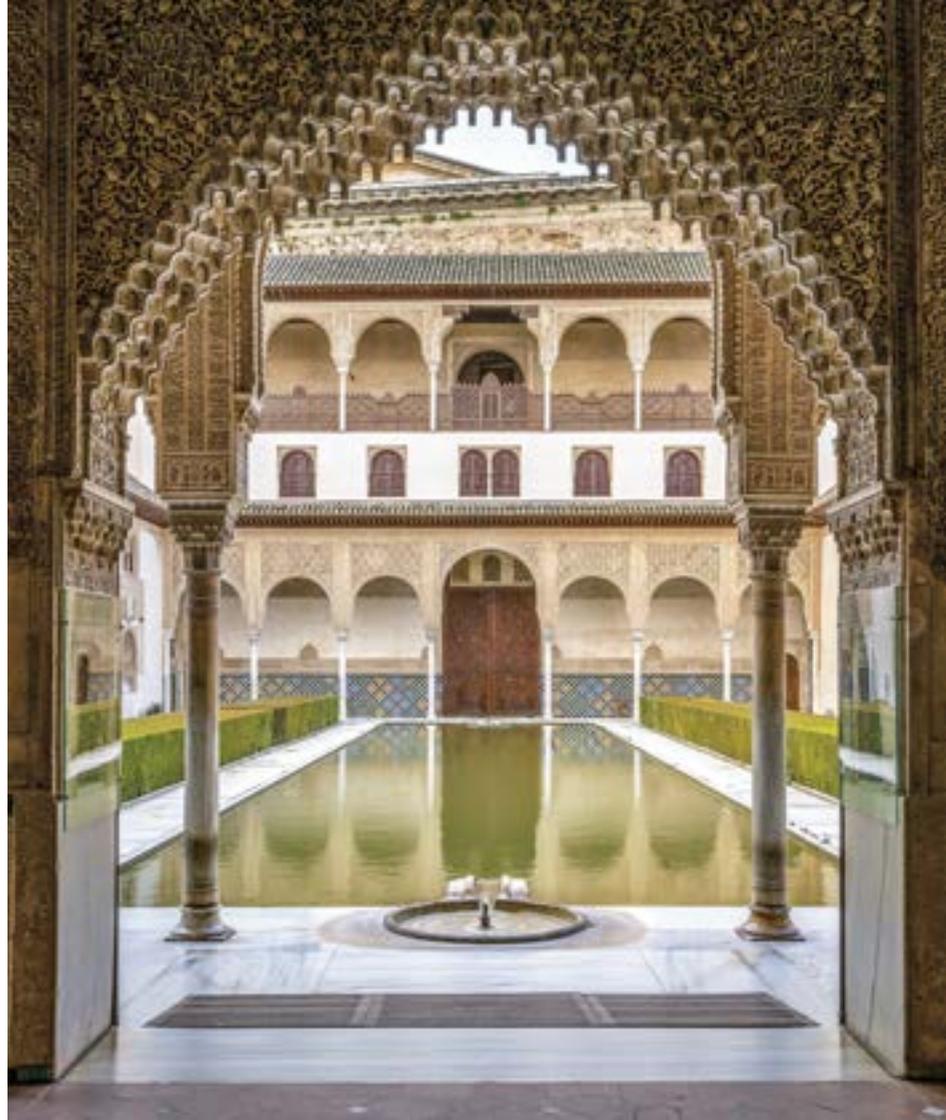
황금의 방 남쪽에 있는 무하마드 5세가 완성한 코마레스 외관 전면의 화려한 장식만 보며 코마레스 궁전의 얼마나 웅장한지 추측할 수 있다. 건물을 반사하는 연못이 자리한 아라야네스 중정 주변의 방 중에서 가장 큰 대사의 방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술탄이 외국 사절단을 맞이했던 곳이다.





▲ 아라야네스 중정 주랑 현관 양쪽에 있는 “알하니아” 라는 두 개의 작은 골방을 들어가며 타일 주각(위), 모카라베 양식, 석고로 만든 섬세한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 아라야네스 중정의 남쪽 외관 전면은 1층과 2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층은 1층과 같아 현관은 7개의 아치 중에서 중앙 평아치로 구성된다. 원래 뒷 건물은 달라 지금 보이는 찰스 5세의 궁전이 지어질 때 철거되었다. 다음은 언뜻 수면에 투영되어 북쪽 외관 정면을 볼 수 있다.







▲ 전망대가 있는 린다하라 중정 주변이 회랑과 비슷하며 기독교 시대의 건축물이지만 이슬람 시대의 정원으로도 비슷하게 보였다.

▶ 두자매의 방 옆에는 다락사 전망이라고 하거나 린다하라 전망대라는 술탄에게 그라나다 전망을 보여주었다. 1526년 찰스 5세의 궁전 건설로 인해 도시의 전경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

